

주문공동몽수지(朱文公童蒙須知)

소장자(처) 경북 의성 아주신씨
소장자(처)상세 신병철
사료구분 고서 사료분류 부; 소학류

해제 유성룡(柳成龍)이 발문을 쓴 주문공(朱文公) 동몽수지(童蒙須知)

어린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적은 수신서(修身書)이다. 우리 나라에는 고려 말경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 와서 아동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내용은 의복·갓·신을 갖추는 일, 올바른 언어와 걸음걸이를 익히는 일,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책을 읽고 글자를 쓰는 일,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자질구레한 일, 독서의 요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마땅히 모두 알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 아버이를 섬기는 일, 사물을 접하여 이치를 궁리하는 일 등은 성현의 말씀에 밝게 나타나 있어 마땅히 차례로 통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오히려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됨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독서와 글자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할 때는 반드시 책상을 정돈하고 책을 똑바로 놓은 다음 몸을 바르게 하여 책을 대하며, 상세하고 천천히 글자를 보고 분명하게 읽되 한 글자라도 많이 읽거나 거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외워서도 안 되고 다만 여러 번 읽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면 오래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에는 심도(心到)·안도(眼到)·구도(口到)의 삼도(三到)가 있는데, 이 중 심도가 가장 중요하니 마음을 모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반드시 소중히 다루어 더럽히거나 구겨서는 안 되며, 독서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책을 덮어 정리한 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였다.

글자를 쓸 때는 벼루를 높이 잡고 단정하게 갈아 먹물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고, 높이 붓을 잡아 글자를 단정하게 본뜨며, 손가락이 붓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 자 한 자 분명하고 자세히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 책은 1517년(중종 12)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10여 종의 판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朱文公童蒙須知

大童蒙之學始於衣服冠

及語言

及洒掃滄潔次及讀書寫文

有雜細

皆所當知今逐目條列名曰童蒙須知

身治心事親接物與大窮理盡性之學自

賢典訓昭然可考官次等第時遠教不復詳若

衣服冠履等一

大抵為人先要身身體端整即冠巾衣服鞋

須收拾處雜帶人等細細意齊整若人常

云男子有三等第一等是衣冠楚楚

冠者於髻腰謂以條或帶束之。脚謂束也。者要緊束不可寬慢實慢則身體放轉。為人所輕賤矣。○凡著衣服必先提整神領結兩衽紐帶不可令有關落飲食照管勿令污壞行路者顧勿令泥漬。○凡脫衣服必齊整摺疊箱篋中勿散亂頓放則不為塵埃雜穢所汚。易於尋取不致散失著衣既久則不免垢膩要勤勤洗滌破綻則補綴之儘補綴無害只完潔。○凡盥面必以巾幌遮護衣領捲束兩袖勿令有所濕。○凡就勞役必去上冠衣服只著短便愛護勿使損污。○凡日中所著衣服夜臥必更則不藏蚤虱不即弊壞苟能如此則不但威儀可法又可省費衣服晏子一狐裘三十年雖意在以儉化俗亦其愛惜有道也。此景饒之要毋忽。

語言步趨第二

凡為人子牙須是常低聲下氣語聲詳緩不可高聲喧闐淨言戲笑父兄長上有所教督但當低首聽受不可妄大議論長上檢責或有過誤不可便自分解姑且隱嘿久却徐徐細言。

云此事恐是如此向者當是偶爾遺忘或曰當是偶爾思省未至若爾則無傷忤事理自明至於朋友分上亦當如此○凡聞人所為不善下至婢僕違過且包箴不應便爾聲言當相告語使其知改○凡行步趨踰須是端正不可疾走跳躑若父母長上有所喚召却當疾走而前不可舒緩

洒掃消潔第三

凡為人子家當洒掃居處之地拂拭凡案常令潔淨文字筆硯凡百器用皆當嚴肅整頓放

有常處取用既畢復置元所父兄長上坐起處文字紙劄之屬或有散亂當加意整齊不可輕自取用凡借人文字皆置簿抄錄主名及時取還窓壁几案文字間不可書字前輩云壞書汚墨痕子家職書凡書硯自點其面此為最不雅潔切宜深戒

讀書寫文字第四

凡讀書須整頓几案令潔淨端正將書冊整齊頓放正身體對書冊詳緩看字子細分明讀之須要讀得字字響亮不可誤一字不可少一字

細言微論
也相音根

不可多一字不可倒一字不可牽強暗記只是
要多誦遍數自然上口久遠不忘古人云讀書
千遍其義自見謂讀熟則不待解說自曉其義
也余嘗謂讀書有三到謂心到眼到口到心不
在此則眼不看子細心眼既不專一却只漫漶
誦讀決不能記記亦不能久也三到之中心到
最急心既到矣眼口豈不到乎○凡書冊須要
愛護不可損污縐摺濟陽江祿讀書未竟雖有
急速必待捲束整齊然後起此最宜可法○凡
寫文字須高持墨錠端正研磨勿使墨汁汚手

高執筆雙鉤端楷書字不得令手楷著毫○凡
寫字未問寫得工拙如何且要一筆一畫嚴正
分明不可潦草○凡寫文字須要子細者本不
可差誤

雜細事軍第五

九子笄須要早起晏眠凡喧闐鬪爭之處不可
近無益之事不可為謂如賭博籠養打毬踢毬
放風禽等事凡飲食有則食之無則不可思索
但粥飯充飢不可關凡向火勿迫近火傍不惟
舉止不佳且防焚藝衣服凡相揖必折腰凡對

父母長上朋友必稱名凡稱呼長上不可以字
必云某丈如第行者則云某姓某丈凡出外及
歸必於長上前作揖雖暫出亦然凡飲食於長
上之前必輕嚼緩嚥不可聞飲食之聲凡飲食
之物勿爭較多少美惡凡侍長上之側必正立
拱手有所問則必誠實對言不可妄凡開門揭
簾須徐徐輕手不可令震驚響凡衆坐必斂身
勿廣占坐席凡侍長上出行必居路之右住必
居左凡飲酒不可令至醉凡如廁必去上衣下
必浣手凡夜行必以燈燭無燭則止凡侍婢僕

必端嚴勿得與之嬉笑執器皿必端嚴惟恐有
失凡危險不可近凡道路遇長者必正立拱手
疾趨而揖凡夜卧必用枕勿以寢衣覆首凡飲
食舉匙必置筋筋舉筋必置匙食已則置匙筋於
按○雜細事宜品目甚多姑舉其略然大略其
矣凡此五篇若能遵守不違自不失為謹愿之
士必又能讀聖賢之書恢大此心進德修業入
於大賢君子之域無不可者汝曹宜勉之
文公訓子塾從學帖

室中事凡事不得縱恣如在父母之側逐日食

後或晚間三兩次下轎徐行共約十餘里以覓僕夫之力登高歷險皆須出轎以防不測過津渡切勿爭先舟中人已多寧少隨後戒飭僕從勿與人爭尋店不可太迫巖險及侵水際晚間少食夜間早睡留親僕在房內以防寇盜過州縣市并擇曠僻清幽店舍安泊閉門靜坐不得出入雖店中亦不必行勿妄與人接尋常到店肆自有一種閑人來相問勞但正色待之勿與親接可也若與之飲食或同行出入未有不為所誤者可戒可戒博戲之場酒食之肆皆不可

輒入推此類則其餘可知不得妄費錢物買飲食襍物○到登州事師如事父凡事咨而後行聽受其言切須下氣怡色不得輒有爭辯○朋友年長以倍丈人行也十年以長兄事之少年少於己而事業賢於己者厚而敬之○初到登州先生合修甚工夫自寫一節目逐日早起交紙遵依趨趨日間勿接閑人說閑話雜問雜答只可說義理論文字而已專意辦自己工夫則自然習熟進益矣課間隨眾趕了不得拖延怠慢○早晚授業請益隨眾不得怠慢日間應索有

疑用冊子隨手札記僕見質問不得放過所聞
誨語歸安下處思省切要之言逐日札記歸
要者見好文字亦錄取歸來○不得自擅出入
與人往還初到問先生有合見者見之不合見
則不必往人來相見亦咨稟然後往報之此外
不得出入一步○居處須是恭敬不得侈肆
慢言語須要謙當不得戲笑誑譁○凡事論議
不得尚氣陵人自取辱○不得飲酒荒忽廢業
亦恐言語差錯失已忤人尤當深戒不可言人
過惡及說人家長短是非有來告者亦勿酬答

於先生之前尤不可言同學之短○交游之間
尤當審擇雖是同學亦不無親疎之辨此皆當
請於先生聽其所教大凡敦厚忠信能攻吾過
者益友也其諂諛輕薄傲慢褻狎道人為損者
損友也推此求之亦自合見得五七分更間以
審之宜無所失矣但恐志趣卑凡不能克己從
善則益者不期疏而日遠損者不期近而日親
此須痛加點檢而矯革之不可在再漸習自處
小人之域如此則雖有賢師長亦無救救自家
處矣○見人嘉言善行則敬慕而記錄之他人

文字勝已者則借來熟看或傳錄而後問之
思與之齊而後已亦拘長少惟善是取○以上
數條切宜謹守其所未及據此推廣大抵只是
勤謹二字循之而上有無限好事吾雖未敢言
而竊為汝願之及之而下有無限不好事吾雖
不欲言而未免為汝憂之也蓋汝若好學在家
足可讀書作文講明義理不待遠離膝下千里
從師汝既不能如此即是自不好學已無可望
之理然今遣汝者恐汝在家汨於俗務不得專
意又父子之間不欲晝夜督責及無朋友聞見

故令汝一行汝若到彼能奮然勇為力改故習
一味勤謹則吾猶有望焉不然則徒爾勞費只
與在家一般他日歸來又只是舊時伎倆人物
不知汝何面目歸見父母親戚鄉黨故舊邪念
之念之夙興夜寐毋忝爾所生在此一行千萬
努力○到婺州先討店權歇泊定即盥櫛具剃
去見呂正字初見便稟某以大人之命遠來親
依先生講席之下禮合展拜倘蒙收留伏乞端
受便拜兩拜如未受即再致懇云未蒙納拜不
勝惶恐更望先生尊慈特賜容納况某於門下

自先祖父以來事契深厚切望盡允又再拜起
叙寒暄畢又進言某晚學小生久聞先生德義
學問之盛今日幸得瞻拜不勝感幸聖定奈畢
拜起叙晚學無知大人遣來後學之意竊聞先
生至誠樂育願賜開允使某得早晚親炙不勝
幸甚又云來時大人拜意有書投納即出書投
之六抵禮數務要恭敬謹錄不妄張皇顛錯

右童蒙須知訓子後學信者文公庭訓之語
範也於初學用力之方最為詳悉故為
用廣其傳庶凡初學
小子有準的耳

童蒙須知者晦庵朱夫子之所著也夫子既
編集小學一書以為小子之學則其涵養成
就以基進德之地者宜無待於他書而復有
此須知何也蓋幼穉之童聞見未廣古今之
說難易不同小學雖以養蒙之道而所載率
多先秦古書下之嘉言善行亦皆漢唐間言
語冰泮訖小兒驟見而輒解者也然其
所易知所易解者而為之教必先於小學此
童蒙須知之所以作也夫人
常自少至老不可一日而無教也

則義理誠慤之心清而猖狂放
消一長曰循輾轉以至於久而
滅而入於禽獸矣雖聖人與居
教之道以豫為急須知之作豫
衣服冠履以及言語步趨次及
灑掃滌潔次及讀書寫文字及
有雜細事皆日用人事之
常而至理之寓也言之至淺行
之至近童稚之所易解也戒飭
之教吟之使謹而不敢肆持而
不敢忘若飢渴飲食之常接乎
身而慣熟於心則智長習成端
莊齊一自有不期然

而然者矣大抵為學有其本教
入有其漸有本故能進有漸故
能入能進能入教學之道備矣
抑因此而竊有感焉聖賢司教
化之權所以閔惻當世而欲兼
善天下者前後一揆也三代以上
上焉而能行教道則於天下而
無不教之民三代以下下焉而
不行教道偏於私淑而天下多
不教之民嗚呼此聖賢所遇之
殊而吾民之幸不幸也方今人
在上闡鳶魚之化以收新民之
效臣此一書眷眷焉後學豐山
柳成龍謹啟

童蒙須知

重蒙須知

書畫所藏



刑歲之季氣候亦

非不...

...

...

...

...

...

...

...

...

...

...

...

...

...

...

...

...

...

...